

“장애인 편견 없어지는 그날까지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원장 묘전 스님



묘전 스님은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직원들의 노력이 더욱 컸다며 함께 사진 찍기를 원했다. 1980년 부산 보덕사로 출가한 스님은 1996년 중앙승가대학 재학 시절 소쩍새마을에서의 봉사활동을 계기로 장애인복지에 나서게 됐다.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이 개도에 오르는데 기여했으며, 원생들로 구성된 예술공연단이 3회에 걸쳐 전국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8회에 걸쳐 한일장애인교류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자비복지타운이 2013년 장애인시설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되는 등 투명한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 앞열 원생 세번째가 묘전 스님.

경전에는 부처님 제자인 '주리반탁'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지적장애를 가졌던 '주리반탁'은 지능이 너무 떨어져 조금 전에 일어난 일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청소와 같은 허드렛일만 주어졌다. 하지만 그는 지극정성으로 청소를 했고 방이 깨끗해 지듯 마음이 맑아졌다. 주리반탁은 수행자로 대중들의 존경을 받았다. 부처님은 장애를 내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관심으로 이들을 이끌었다. 신체의 불리함을 인욕과 지혜의 근간으로 오히려 본 까닭이다.

부처님과 같이 20년 가까이 지적장애인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온 한 스님이 있다. 장애인들의 척박한 삶에 희망을 전하는 이는 바로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원장 묘전 스님이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자비복지타운에서 스님을 만나는 12월 15일, 기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부터 견어낼 수 있었다. 스님은 최근 묘엄불교문화재단이 선정하는 묘엄불교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소쩍새마을'에서의 봉사 인연으로 시작

아이러니하게도 묘전 스님이 장애인 보살핌에 나서게 된 것은 장애인 복지에 일대 파문이 일고 있을 때였다. 바로 1995년 소쩍새 마을 사건이 계기였다. 당시 MBC PD수첩에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의 실태를 다룬 '소쩍새마을의 진실'을 보도했다. 당시 원장이었던 일력 스님은 소위 가짜승려로 판명됐으며 그가 보여준 비행은 수많은 후원자들은 배신감을 안겨줬다. 이에 조계종립 승려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은 소쩍새마을을 인수했다. 승가의 명예가 훼손

되지 않고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였다. 묘전 스님은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자원봉사를 통해 소쩍새마을을 알게 됐다.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자 스님의 추천에 1996년 11월 재학 중에 처음 소쩍새마을에 봉사활동으로 가게 됐습니다. 당시 후원이 줄어들어 상에서 승가원이 인수했고, 이에 소쩍새마을의 살림 형편은 어려운 상태였어요. 장애인 가족들은 그대로였는데 말이죠." 이후 총무소임을 맡게 된 스님은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다고 말했다.

"인수받았을 때 시설이 폐교에 있었는데 학교시설을 이용하다보니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대부분이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호적이 없는 장애인 가족들이 21명에 달했어요.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자기들끼리 개공이, 공주 이렇게 부르고 있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선제, 연화 등 불교 이름으로 호적을 만든 것이었어요."

스님은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해결에 나섰다. 총무로서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 후원자를 발굴하는 한편 야채, 육류 등의 식자재를 후원받고, 원주의 시장 등을 혼자 다니며 시설 인수 초기의 어려운 살림을 묵묵히 헤쳐 나갔다.

겨우 정상화 시키니 사람 흥수가

근 1년여를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살림살이는 나아졌다. 하지만 문제가 또 있었다. 중앙승가대학에서 맡게 된 이후 '정상화'가 언론에 보도되자 전국에서

장애인 보살핌 20년

1996년 소쩍새마을 봉사활동 계기

2005년 이천으로 이전하며 원장 맡아

300여 장애인 돌봐... 묘엄문화상 수상

장애인 가족들이 몰려왔기 때문이었다. 자고 나면 시설에 의탁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났다. 묘전 스님은 '사람 흥수'라고 표현했다.

"인수 당시에는 78명의 지적장애인 가족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침 6시에 아이들 밥을 짓기 위해 방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라면박스에 3개월 정도 된 다온증후균을 앓고 있는 아이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도 울었는지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아이였어요. 날이 추워 온몸에는 빨간 반점이 나 있었습니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네 살려야죠. 원장이셨던 보자 스님의 성을 따서 조경로라고 이름을 짓고 보듬어 안았습니다. 이렇듯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 모두가 절절한 사연이 있었습니니다. 그러다보니 1997년 쯤 됐을까요? 함께 사는 장애인 가족들이 316명으로 늘어났어요. 1년 만에 200여 명이 불어난 것이죠."

스님께 따르면 당시 자비복지타운 내 직원은 채 30명이 되지 않았다. 암말기환자를 비롯해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스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밤낮없이 2교

대를 서기 일 수였다. "지금 같으면 못한다"며 활짝 웃는 스님은 "모든 직원이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고 회상했다.

"그때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데 사람들이 몰려다 보니 잘해주지 못한 점이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현재는 후원이 늘었고 재정적으로 국가보조도 일부 받고 간병인도 지원이 나오지만 당시에는 직원들이 모두 다 했어야 했습니다."

장애인 인식 바꾸는 일이 가장 힘들어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 바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미인가 시설이었던 소쩍새마을은 주거환경 개선과 개방,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자비복지타운으로 쇠신했지만 처음부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사회복지시설 인허가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재활과 주거의 공간 확보를 위해 2005년 이천으로 이전하게 된다. 스님은 그해 12월부터 원장을 맡아 시설이 본궤도에 오르는데 앞장섰다. 시설 이전과 인가시설로의 전환을 위해 후원자를 모집하는데 나서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이전 반대에 봉착하게 되는 이중고를 겪었다.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니 지역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각 가정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호소하며 주민들을 설득했죠. 그 과정에서 승려로서도 듣지 못할 많은 말을 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웃는 얼굴로 한분 한분 설득해야 했지요. 담배 말리고 농

사일을 거둬며 승낙을 받았습니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아직도 지역 내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년 경로잔치를 열고 지역 어르신들이 마음을 내도록 하게하고 있습니다."

스님을 비롯한 당시 원력 있는 이들의 심심일만 노력으로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은 정부 지원금 12억 원을 유치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건립부지 마련을 위한 모금을 벌여 30억 원을 모았다. 이를 통해 2006년 11월 불교계 최대 장애인 생활시설인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이 자리하게 됐다.

스님은 2011년부터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장애인 가족들이 생산한 비누와 두부 등 상품을 나누는 한편,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천연비누제조' 강좌를 개설해 장애인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교육과 훈련을 받는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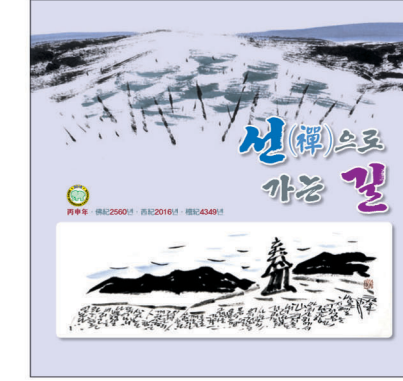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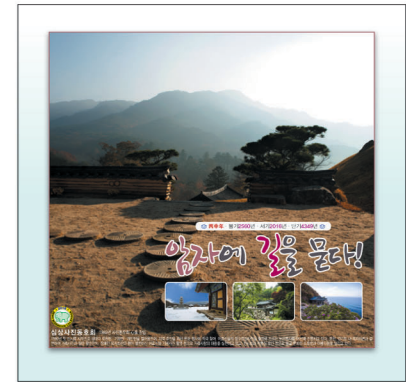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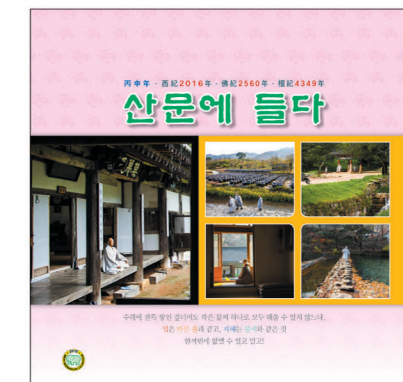
중증장애인 재활에 적극적으로 나서

묘전 스님은 이천으로 자비복지타운이 자리를 옮긴 뒤 본격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에 앞장섰다. 타운 내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의료재활과 특수교육을 실시했다. 또 시설 내 보치아 경기장과 경기용품을 구비하여 장애인들이 손쉽게 체육활동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치아는 '컬링'이나 '볼링'과 비슷한 경기로 뇌성마비 중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암자·포교당 등 대·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심없이 정진하겠습니다”



2013년 5월 진행된 장애인문화예술경진대회에 출전한 사물놀이단



2015년 8월 진행된 불령대회에서 스님과 선수로 나선 불자 원생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다소 장애가 있지만 능력이 있는 이들이 많아요. 모든 장애인 가족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지만 한두 명이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여도 다른 장애인 가족들에게도 혜택이 함께 돌아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장점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1998년부터 시설 내에서 보치아 경기를 준비했다. 2002년 10월, 안명훈 가족이 부산 아태장애인경기에서 금메달을 2개 획득했으며 2004년에는 아태장애인올림픽에서 역시 안명훈 가족이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스님은 “다소 장애가 있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인들과 다름이 없다”며 “이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2007년에는 경기도 세 번째 지적장애인축구팀으로 'FC승가원'을 창단해 2009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7명의 선수가 선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인근 실성초교 방과후학교로 파견돼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의 아동들에게 축구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지역초등학교 학생과 다문화가정의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리틀FC승가원'도 창단했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불교시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죠.”

이와 함께 스님은 장애인 가족들로 사물놀이단을 육성하기도 했다. 장애인가족들의 높은 열의 속에서 이들은 창단 1년 만인 2008년 전국장애인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09년 경기도 두동페스티벌에서 대상, 2011년 제1회 경기도지사배 풍물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최고의 사물놀이단으로 발전했다. 현재도 지역의 다양한 무대에서 매년 15회 이상 초청공연을 하고 있다. 여기에 2008년 일본 요코하마시 라플센터에서 '사물놀이'와 '꼭두각시' 공연을 했으며 2010년에는 일본 이세하라시 문예회관 극장에서 일본 장애인·비장애인 팬터마임 극단인 쇼난 가메구미 30주년 공연에서 초청공연, 2013년에는 일본 에노시마 가마쿠라 예술회관에서 합동공연을 하는 등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한·일 장애인 교류사업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2009년에는 인천아트홀에서 '사물놀이', '난타', '꼭두각시', '댄스' 팀으로 구성된 '승가원자비복지타운 공연단'을 만들어 지역주민 대상의 유료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인천 시장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감동적이었

다고 전하더군요. 장애인들도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린 계기였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끼와 재능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 '승가원자비복지타운 공연단'은 2008년 파주 전진사 군부대 공연을 시작으로 삼척23사단, 포천 이동8사단, 원주교도소, 여주교도소, 장충체육관, 원주지역체육관 공연 등 17회의 외부 공연을 하며 군인, 재소자, 지역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했다.

스님은 “역으로 교도소 재소자의 경우 장애인 가족들도 이렇게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한다”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능력 개발 10년

보치아 경기 육성... 장애인올림픽서 금메달 2007년 지적장애인축구팀 'FC승가원' 창단 장애인 가족들로 사물놀이단 만들어

“장애인 독립가정 이루도록 돕는 게 꿈”

이와 함께 스님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일에도 나서고 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지적장애인들이 '돈'의 가치에 대해 모를 것이라는 것이예요. 이들도 자신의 생업에는 외부에 나가서 지인들을 모아 파티를 열기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옷을 사 입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이 노동을 해서 수익을 얻기를 원해요. 모두가 각자 통장이 있고, 월급을 받기도 합니다.”

스님은 2010년부터 장애인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전개됐던 비누 및 두부 제조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상품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내에는 비누·도자기·스태플러 제작, 제과, 카페 운영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외부업체에 5명이 직업을 두고 있고, 자체 내 보호작업장에 시설 거주자 50%, 재가 장애인 50%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윤이 발생하면 인원수대로 나눠서 모두 돌려주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사랑하고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스님은 “살다보니 그 안에서도 서로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 서로 커플반지를 주고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스님은 “현재 5쌍이 결혼한 상태로 내년에도 1쌍이 결혼할 예정”이라며 “시설에 남은 가족의 경우 별도의 부부방을 마련해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의 여건과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19년이 넘게 행복한 부부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2014년 2월에 발표된 '전국장애인시설평가'에서 전국상위 10% 내 시설로 평가되기도 했다. 거주 장애인들의 자립 활동에 대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스님은 “장애인 가족의 어머니들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많았다”며 “장애인들에게 기회와 선택권을 주고 함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장애인복지에 보다 관심 가져야”

“스님인데 참선이나 기도할 기회조차 못했었다”는 스님은 “주변과의 인연도 소홀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마음공부는 많이 됩니다. 여기 아이들은 사랑 하나에도 행복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몸 하나 건강한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스님은 소임을 보며 나온 월급을 모아 장애인 치료 등에 도움을 준 중풍대 일산병원에 기부하기도 했다.

스님은 “함께 지내는 장애인 가족이 한명도 소외됨이 없이 행복한 것이 남은 생의 목표”라며 남은 임기 동안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이 장애인들의 삶의 공동체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불자들의 후원과 관심도 당부했다.

“3개 프로그램 외 10개가 넘는 자활 프로그램이 모두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종교가 없거나 이웃종교인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한번은 장애인 가족들의 공연을 수십 개 사장을 다니며 홍보를 했는데, 결국 아무 절에서도 오지 않으셨더라고요. 불자들에게 장애인들이 그 한계를 넘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역 장애인 분들만 관망하셔서 실망했죠. 후원뿐만 아니라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이 와서 봐주시고 격려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 문의 (031)642-1300

이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부처님 미소가 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장애인에 나와 우리가족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들이 많다. 장애인들 역시 부처님의 제자라고 외치지만 정작 부처님 도량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들은 불교에는 팔만대장경에 담긴 한없는 많은 법문과 함께 많은 불교경전과 서적이 있지만 이를 보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광림사에서 2011년부터 시각장애인 불자들을 위한 청각·시각장애인 법회를 열고 있다. 매달 한번은 법산 스님께서 법사로 그들을 격려하는 법어를 내린다.

법회에 동참하는 시각장애인 불자들은 경전을 외우기 위해 손끝으로 한자 한자 만지며 독경을 한다. <천수경> <반야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다음 기회로 이야기를 넘겼다.

한 직원이 다음날 조계사 앞 불교용품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상, 관세음보살상, 지장보살상을 구입하여 즐겼다. 기발한 아이디어에 깜짝 놀라서 칭찬했다.

법회일을 맞아 불상을 앞에 놓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한분씩 순서대로 손으로 부처님 상호를 만지도록 했다. 부처님 형상을 분야별로 설명하고 특히 입가에 은은하게 있는 미소의 모습도 직접 만져 보게 하며 설명을 하였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아름다운 미소를 띄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스님, 이런 시간은 제 평생에 처음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후 광림사에서 진행되는 법회 마다



그림·박규원

경)은 물론이고, 법문 내용도 모두들 녹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법회에 올 때까지 법문을 계속 듣기 위함이다.

광림사에서 부처님상 점자서적과 음성 녹음 도서를 제작하고 있지만 많은 경비 때문에 길이 막힐 때가 많다.

두눈으로 볼 수 없는데 감사함을 느끼고 시각장애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평화로움을 느끼기를 바라며 후원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언젠가 법회를 마치고 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시각장애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

“스님, 부처님의 형상이 궁금합니다. 특히 부처님이 보이시는 아름다운 미소가 참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나는 무척이나 당황하였다.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의 형상을 설명했으나 부처님의 아름다운 미소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출가자로서 부처님을 설명하지 못한다니 고개를 들기가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반면에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감사함을 몰랐음도 느끼게 됐다.

결국 부처님의 미소를 설명하기 어려워 직원들과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할

시각장애인들의 참석이 늘어났다. 현재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가족이 되어 모든 제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내견(도우미보살)도 법회에 참석한다.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도우미 역할을 해주기에 안내견 보다 '도우미보살'이라는 명칭을 주었다.

초반기에 불교 성지순례 법회때 도우미가 되어주는 안내견이 청정도량 내에 들어 올 수가 없다고 하여 종무소를 뛰어다니고 허락이 안 되면 스님을 직접 뵈고 설명을 드리고 어렵게 법당에 참여하였지만 이제는 스님들과 많은 불자들의 폭넓은 이해로 법당참배도 훨씬 수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장애인 불자들이 비장애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사찰을 참배할까 말까 망설이기보다 활발하게 수행활동에 적극성을 보여주어야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차별과 편견이 없어지며 장애인 포교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해성 스님(연화원 이사장)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퇴마·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은銀 염주 합장주 금강저 팔찌 목걸이 반지 모든것



「인터넷·네이버 주얼드림」 클릭하면 염주·목걸이·팔찌·반지 기타 다양한 불교용품이 가득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 공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현로 237-1 ☎ 031-969-9495 / 010-5441-9495
- 매장 : 서울 남대문 우주상가 3층 314호 주얼드림 ☎ 02-318-2314 / 010-8922-5141
- 계좌번호 :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 주얼드림)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사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쳐던 삶. 전강 대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값 15,000원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 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각권 12,000원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